

해방 이후 한의사 신광렬의 생애와 활동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The Life and Activities of East Asian medicine doctor Shin Kwang-ryul after liberation

LEE Kye-hyung
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Shin Kwang-ryul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Shinbukcheong People's General Hospital, and defected to South Korea alone in December 1945 with hostility to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Later, he joined the political operation team (政治工作隊) and was dispatched to the Sinbuk Office as a member of Hamgyeong-do's committee. However, after this was revealed, his wife was taken to the security and tortured to death. Later, when he learned about this, he left a *Wolnam Yuseo* (越南遺書) and decided to commit suicide. He left politics and started a new family while running a pharmacy. In 1950, he fled Dangjin, Chungnam, during the Korean War and opened an East Asian medical clinic. In 1955, he passed the Korean Medical Examination and opened Cheongpa Oriental Medicine Clinic in Asan, Chungcheongnam-do. In 1969, he ran an East Asian medical clinic in Dohwa-dong, Mapo, Seoul, and moved to Hongeun-dong in 1972 to open Hamnam Oriental Clinic. At this time he wrote a Cheongpa Pharmacy Summary (靑坡驗方要訣). In his later years, he treated poor patients for free, and he continued to work even though he was unwell due to a broken spine. He died in 1980 leaving behind a "proud mind".

Key words : Shin Kwang-ryul, the Sinbuk-cheong People's General Hospital, political operation team (政治工作隊), Wolnam Yuseo (越南遺書), Cheongpa Pharmacy Summary (靑坡驗方要訣)

I. 머리말

신광렬은 1903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동상리에서 부친 申永均과 모친 과평 윤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靑坡이다. 그의 본명은 申鉉表였는데 이후 독립운동 당시에는 申瓏로, 1944년경 申光烈로 개명하였다. 그의 집안은 한의업을 가업으로 삼았고 그는 6대에 해당한다. 그가 9살이던 1911년 부모님, 숙부(洪均·東均) 등 온 집안 식구가 신북청면을 떠나 중국 길림성 장백현 17도구에 있는 왕가동으로 이주했고, 그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때 숙부 신흥균은 원종 창시자 金中建을 만난 이후로 원종교 대종원장을 역임하였고 독립군 대진단 장백현 지단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신광렬은 신흥균

의 영향을 받아서 항일의식이 남달랐다.

그는 1921년(19세) 서간도를 떠나 북간도 용정시 동흥중학교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 잠시 장백현에 있던 第一正蒙學校 훈도로 재직하였다. 이후 1926년 혼인하면서 귀국하여 함북 갑산군 혜산진에서 서기로 생활하였으나, 여의찮아 고향으로 돌아가 가업인 한의업을 수학하였다. 하지만 그의 집안이 일제로부터 요시찰 대상에 올랐기에 醫生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후 그는 가족을 이끌고 북간도 용정으로 건너갔다. 당시 그의 가족은 연길현 守信鄉 長境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북간도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였다. 이때 1929년 11월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 그곳까지 확산하자, 그는 1930년 3.1절 제11주년 기념일에 일제를 몰아내려는 혁명을 꾀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를 확대하고자 '전동만폭동위원회'를 조직,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쫓겨 혜산진으로 피신하였지만, 1930년 4월 혜산진 경찰에 피체되었다(제3차 간도공산

접수 ▶ 2023년 11월 09일 수정 ▶ 2023년 11월 27일 채택 ▶ 2023년 11월 25일
교신저자 ▶ 이계형,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709호
Tel : 02-910-4216 E-mail : lee5027@hanmail.net

본 논문은 2023년 대한학술원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음

당 사건).

그는 간도총영사관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서울로 압송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그의 수형 번호는 1679번이었다. 그는 70일 가까이 가혹한 일본 사상 검사의 취조를 받고 1930년 8월 1일 동지 20명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다. 이후 그는 서간도로 건너가 의사시험[洋醫]에 합격하였고 광생의원을 열어 8년간 운영하였다. 그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가 곧 패망할 것으로 생각하여 신복청에 귀향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자 신흥군이 머물고 있던 흑룡강성 목단강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의업과 농업을 병행하였다.¹⁾

본 논문은 신광렬의 해방 이후 활동에 주목하였다. 신광렬의 생애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고, 해방 이후에는 신익희가 주도하였던 정치공작대에 활동하며 잠시 정치활동을 펼쳤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본업이었던 한의사로 살았다. 이러한 그의 삶을 그가 남긴 『越南遺書』를 토대로 미군정기 사료, 신문·잡지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II. 해방 직후 반소적 적개심에 越南

신광렬은 1945년 8월 고향 신복청에서 뜻밖에 해방을 맞이했다. 그는 미군이 이오지마(硫黃島)를 점령한 이후 일제의 패망이 질어 오자, 1945년 3월경 교통이 끊길 것을 염려하여 흑룡강성 시외 東溝에 기거하다가 두만강을 건너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 뒤 그는 매일 덕음리 長蓮湖²⁾에서 낚시하며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당시 그는 “기쁨에 활로와 감개무량한 마음 측량할 길 없으리라!!”라며 기쁜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월남유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40여 년간 놈들의 鐵網과 足鎖로 신음하다가 불의에 해방이 왔으나, 오히려 흥중에 잔류한 驚懼之心은 시일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조상과 선배들은 피를 흘리시며 항쟁하였고, 무수한 애국 동지와 술한 열사들이 압록강·두만강에 얼마나 虐殺되었으며 무명인사의 주검은 그 얼마던가?

그가 ‘驚懼之心’을 느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면서 일제의 잔악한 식민 통치를 경험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본인이 1930년 제3차 간도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무수한 애국 동지와 술한 열사들이 압록강·두만강에서 학살[수장]되었다는 것은 과거 그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가 17살 때 장백현 15도구 熊句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안에 있던 함남 삼수군 강진면 斗地里(나랍포) 주재소의 헌병대가 암살대를 조직하여 월강하여 숙부 신흥군을 체포하여 압록강에 수장시켰다. 당시 이를 목도한 그는 “원한과 忿怒之心은 입으로 형언키 難할뿐 아니라 白髮老境인 나의 심중에도 항시 애수로다”라고 할 정도로 평생 잊지 못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 분단의 서막이 올랐다. 소련의 외상 몰로토프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지 이틀 뒤인 1945년 8월 8일 주 소일본대사를 초치하여 대일선전포고하였다. 소련군은 8월 9일 0시를 기해 동북서 3방면에서 만주의 중심부를 공격하였고, 소련 비행대는 청진과 나진을 공습했다. 이때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8월 10일 일본왕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그날 밤 미국은 남하하는 소련군을 저지하고자 급히 삼부조정위원회(SWNCC)를 열고 8월 11일 38선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점령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8월 15일 ‘일반명령 제1호’를 공포하여 “38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하고”(2조), “38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 태평양육군사령관에게 항복한다”(5조)라고 하여 38선을 공식화하였다.

그런데 소련군은 ‘분할점령안’이 논의될 당시에도 8월 12일부터 한반도에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소련 태평양함대가 웅기와 나진항에, 8월 13일에는 청진항에 상륙했다. 이어 소련 육군 25군단 휘하의 제393사단이 웅기, 나진을 거쳐 8월 16일에 청진을 점령하였다.³⁾ 일본군은 소련군에 쉽게 진압되었다. 8월 21일 소련 25군단 선발대가 함흥에 진주하여 일본군 주력인 관동군 제34군을 무장 해제시켰다. 이후 8월 24일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상장이 그곳에 도착하여 도청 간부들과 행정권 접수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음날 8월 25일에 일본 헌병과 경찰이 치안을 계속해서 담당하고 행정 사무 또한 종전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1)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越南遺書』를 통해 본 申光烈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 참고.

2) 장진만의 호수에서 덕음리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3)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5;9:348-349.

한편, 신광렬이 거쳐하고 있던 함남은 일제강점기부터 좌익 세력이 강했던 만큼 해방 직후 이들이 정국을 주도해 나갔다. 1945년 8월 16일 함흥형무소에서 석방된 정치범·경제범 200여 명은 기존에 활동하던 인사들과 함께 함경남도 공산주의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그들은 인민주권 수립을 슬로건으로 국민대회를 열어 도군면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가 하면, 대중조직 건설에 착수해 흥남화학노동조합, 함흥지구 금속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것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함흥지역이 일제강점기에 공업지역이 발달하여 노동자가 많았으며 노동조합이 비교적 잘 조직되었기 때문이다.⁴⁾ 이와 별도로 중도 좌익의 도용호가 중심이 돼 함경남도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8월 25일에 함경남도공산주의자협의회 宋成寬·崔基模·林忠錫·金仁學과 함경남도건국준비위원회 都容浩·崔明鶴 등이 高昌一·金禮鏞과 함께 소련군 사령부의 치스짜코프 대장을 방문하여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 결성을 알리고, 일본 측의 행정권과 기타 일체 특권을 이 위원회에 이양하도록 교섭하였는데, 그가 이를 승인하였다.⁵⁾ 이후 8월 30일, 조선민족함경남도집행위원회는 ‘함경남도인민위원회’로 개칭되어 함남의 치안, 행정 모두를 장악하였다.⁶⁾ 이들 간부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⁷⁾

이 무렵 신광렬은 신북청역인민종합병원 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신북청역인민종합병원은 1926년 11월 신북청역이 개통된 이후 1930년 무렵 신북청철도병원이 설립되었는데, 해방 이후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인민종합병원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광렬이 어떻게 병원이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그의 『월남유서』에 “나의 소유인 즉 만주에서 사용하던 의용품과 기타 의료 기계, 기구 등을 그 병원 내에 두고 1945년 12월경 반복 월남하였다.”라고 한 점으로 미뤄 그가 해방 이후 신북청철도병원이 인민종합병원으로 바뀌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의료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 의료의 이상인 전 인민을 위한 단계적 무상치료제 실시, 無醫面⁸⁾ 퇴치 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⁹⁾ 하지만, 북한에서 의료 국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무렵에 함흥지역 의료업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중앙정부’ 수립 이후에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정 문제였으며, 셋째는 북한의 국가경영이 아니라 소련군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¹⁰⁾

이와 관련하여 1946년 초 평안남도에서 여러 명의 개인 의사가 병원 자재를 지방인민병원에 이관하면서 인민병원 의사가 되었다는 점¹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료기관의 무상 몰수나 마찬가지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인민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광렬 또한 만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의료기구를 신북청역인민종합병원에 이관하였고 병원장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가 월남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광렬을 비롯하여 월남하는 의사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1946년부터는 월남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월남민들 가운데 의사를 비롯하여 교육자, 법률가, 정부관리 등 식자층이 50% 정도 차지했다고 한다.¹³⁾

신광렬이 월남한 또 다른 이유는 ‘해방군’이라 자처했던 소련군들의 반인륜적 소행과 현지의 개인 소유나 공공재를 전리품으로 인식하여 마구 반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반소적 적개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광렬은 『월남유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한참 동안은 해방이니 독립이니 떠들더니 소련 군대가 진주하기 시작되자 자유와 인권침해는 불가형언이고, 소위 보안대¹⁴⁾란 자들이 무법천지에서 強權 발동과 동시에 소련군의 흥남질소공장 기계 운반과 동시에 압

4) 유길재,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91:49-52.
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巖南堂書店, 1964:169.
6)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5:9:353; 강응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020:23(1):47-50.
7) 위원장 都容浩, 부위원장 崔明鶴, 교육국장 文錫九, 재무국장 李鳳洙, 행정국장 金濟鳳, 교통체신국장 宋成寬, 농림국장 張會建, 사법국장 趙松波, 인민보호국장 張海友, 보건국장 崔明鶴, 함흥시인민위원회 위원장 朴鍾煥(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東京:巖南堂書店, 1964:172).
8) 의사가 없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을 일컫는다.
9) 김진혁, 문미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 의료지원과 교류(1945-1958): ‘소련배우기’와 ‘주체적’ 발전의 틈새에서」, 의사학, 2019:28(1):147.
10) 김진혁, 「해방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월남의사의 정착」, 역사와 현실, 2022:126:37.
11) 김진혁, 앞의 논문, p. 38.
12) 김진혁, 위의 논문, p. 42.
13) 김진혁, 위의 논문, p. 50.

록강의 수풍댐, 청진의 일철공장 기계와 성진의 고주과 공장 등의 기계 반출 또는 만주, 몽골 등지로 우마 반출을 조선으로 운기항까지 하여 소련으로 盜入하는 등 또는 조선에 나왔던 소련군 장교는 본국으로 이전 시에는 倭人用 가구와 기타 문짝, 다다미 등까지 반출하고 또는 만주로서 移運하는 被戰災民들의 화차상에 乘輪하여 가는 도중에 車上에서 청장년 남자는 소련군이 무참히도 추락사시키고 그의 가족 중 청춘 여자는 차장실 또는 정거장 域內 ○所에서 음행하는 等事를 目見하고 於是에 反蘇의 적개심이 맹아 용출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소련군이 함흥지역 내 공장 주요 시설을 자국으로 반출하거나, 장교들이 일본인이 소유했던 집의 가구들을 마구 뜯어가는 것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생산된 여러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⁵⁾ ① 북한 주재 소련 군정청 문서 : 1945년 8~9월 금속가공 공작기계, 발전설비, 기계제작 설비 등을 소련으로 반출, 소련 국방부 ‘조선그룹’이 1945년 9월 북한의 산업실태 조사 및 북한 내 공장 생산물과 공업설비의 소련 반출 건의했다. ② 소련 연해주군관구 사령관 메레츠크프 명령서 : 1945년 11월 소련 반출을 위해 북한 내 각종 중공업공장들이 생산을 개시했다. ③ 소련 외교부의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 : 1945년 12월 북조선 군사중공업 공장은 붉은 군대의 희생으로 징취한 전리품이다. ④ 월남한 조선민주당 인사들의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 : 1945년 12월 수풍발전소 발전기와 쌀 등 7~8억 달러라 상당의 물품을 소련으로 반출하였다.

둘째는 소련군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젊은 처자를 욕보이는 등의 반인륜적 소행을 보고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45년 12월 29일 소련군 중좌 페드로프가 소련군 진주 후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등 3개도를 방문, 조사한 뒤 작성한 13쪽짜리 보고서에도 담겨 있다.¹⁶⁾ 보고서는 연해주 군관구 정치담당 부사령관 칼라시니코프 소련군 중장에게 보고했고, 이듬해 1월 11일엔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위원인 스티코프 상장에게도 전달됐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군인(소련군)의 비도덕적인 작태는 실로 끔찍한 수준이다.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매일 곳곳에서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非行을 자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부대가 배치된 시나 군 어디서나 밤에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범죄도 만연해 있다.”

“대낮에도 거리에서 술에 취한 군인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신의주 내 70곳 이상의 여관과 공공건물에서는 밤마다 질펀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다. 1945년 12월 6일 공병장교 막시모프는 휘하 병사 7명과 함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여자를 부르고 밤새도록 술판을 벌인 뒤 다음 날 아침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막시모프 일행이 5일 후인 11일 또 이 여관에 들러 숙박 비라며 돈을 냈는데, 당시 북한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취급되는 만주 돈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광생의원을 운영하면서 고향에 적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마저도 토지개혁에 모두 빼앗겼다.¹⁷⁾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신광렬은 이러한 현실에 반소적인 적개심을 품게 되어 홀로 월남하였다. 당시 그가 어떤 루트로 38선을 내려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신북청에서 서울로 오기 위해서는 함경선의 신북청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서 경원선을 갈아타야 했다. 그런데 38선으로 분단되면서 교통로는 원활하지 않았다. 1945년 12월까지만 해도 38선 이북에서 남하하는 열차는 철원까지 매일 한 차례씩 운행하였지만, 신북청역-함흥역-고원역(이상 함경선)-고산역-북계역-철원역(이상 경원선)으로 이어지는 기차를 이용할 경우 5일이 걸렸다. 각 구간역에서 기차를 바꿔 타야 했고 그럴 때마다 1박을 해야만 했다.¹⁸⁾

14) 북한에는 소련계 무기로 무장했으며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치안대(North Korean Police)註 038와 보안대(Defense Corps)가 있었다.

15) 동아일보. 1946년 4월 15일자. 「38선 이북 답파기, 함경도반(2)」.

16) 동아일보. 2010년 3월 10일자. 「1945년 北 진주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해방군 아닌 약탈군이였다」.

17) S기자. 「저명한 한의원을 찾아서」. 醫林 102. 의림사. 1973:44.

18) 동아일보. 1945년 12월 17일자. 「38선 교통로(하)」.

Ⅲ. 신익희의 정치공작대 함남북도 책임위원으로 활동

1. 정치공작대의 결성

신광렬이 월남한 직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가 처음으로 서울을 구경하였던 것은 제3차 간도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개월가량 옥고를 치른 뒤 석방된 이후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그가 알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에 같은 처지로 남하하였거나 고향을 가지 못한 이들이 조직한 단체를 우선 찾지 않았을까 한다. 해방 직후 1945년 11월 10일자 중앙신문에 재경함남인연락소를 설치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이와 함께 서울에 北鮮청년회·대한혁신청년회¹⁹⁾ 등 월남한 38선 이북인들의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재경한 함남인연락소 설치, 기타를 협의하고 아울러 친목 융화를 圖하려고 하오니 재경 함남인은 左記에 의하여 掃萬來臨하십시오.

시일 : 11월 11일 오후 1시.

장소 : 낙원정과학협회(구 구역소지)

재경함남인연락소 설치 발기인 백

이때 친우의 장남 安俊熙를 만나서 정치공작대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안준희는 월남 후 임정국내특과사무소에 참여하였고, 이후 徐尙虎(원산 출신), 趙成植 등과 함께 정치공작대 함경도 조직책으로서 派北되었기 때문이다.²⁰⁾ 정치공작대는 1945년 12월 초 임시정부 2진이 환국한 직후 조직되었는데, 이는 임시정부가 일제 패망이 가까워질 당시 1944년 3월에 조직한 국내공작특과위원회에서 비롯되었다. 정치공작대는 요원들을 국내로 잠입시켜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 선전, 자금 모집, 거점 및 군사시설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 일원이었던 白昌燮이 1944년 11월 22일

충청을 출발하여 부양에 주둔하고 있던 광복군 제3지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김학규 지대장과 국내공작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의논한 후 1945년 4월 14일 국내에 잠입하였다.²¹⁾ 그의 임무는 당시 광복군과 미국의 OSS가 연합으로 독수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연합국의 상륙에 대비하여 거점 확보와 이에 호응할 청년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해 8월 일본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독수리작전은 취소되고 말았다.

해방 직후 백창섭은 曹仲瑞·金濟璿·李相敦·姜應龍 등 7명과 함께 종로 3가의 大福旅館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에 대비하고자 계동 林炳冀 집 앞 2층집에 임정국내특과사무국을 설치하였다. 특과사무국은 주로 월남한 이북 출신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함경도 출신의 안준희·조영진·백시영 등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특과사무국은 처음에는 종로구 근농동에 소재한 일제강점기 야전피복공장 여직공 숙소를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는 전라도 부호인 김흥배가 제공한 것이다. 그들은 이를 虎林莊으로 불렀는데 여러 우익 청년 단체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특과사무국의 활동 목적은 임정 환영 준비, 요인 숙소 확보, 신변 경호 등이었지만, 충청 임시정부의 환국이 미뤄지고 그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그러한 임무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 뒤 특과사무국은 齊洞, 桂洞 등지로 이전하였다.²²⁾ 그 뒤 김구가 환국한 이후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견지에서 김구의 지시로 특과사무국은 해체되었다.²³⁾

1945년 12월 2일 임시정부 요인 2진이 경교장에 모인 자리에서 백창섭의 안내로 조중서·朴文·임병기·김정실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시정부는 급선무로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내무부장 신익희에게 관장토록 했다. 12월 6일 국무원 의결로 정치공작대를 조직하고 남한 전역과 가능한 북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²⁴⁾ 12월 10일 본격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 단계를 타개할 구체안을 토의하였는데, 핵심은 어떻게 전 민족의 역량을 총단결할 것인지와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였다. 토의 끝에 독립의 완성은 전 민족적 통일전선을 신

19) 대한혁신청년회는 1945년 10월 30일 백시영·조영진·한동규·이춘식 등 이북에서 월남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초대 위원장은 유진산 이는데 1946년 1월 말 사임하면서 정치공작대 정보반장 朴文이 2대 위원장에 취임하였다(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서울:建國青年運動協議會, 1989:287).

20) 정치공작대의 요원으로 활동하였다(김제선, 『大韓民國 建國을 爲한 政治工作隊의 活動主史』, 서울:낙산동지회, 1994:74). 신창현, 『해공 신익희』, 서울:太極出版社, 1976:291-293.

21) 백창섭, 장호강, 『항일독립운동사』, 서울:아동문학사, 1982:285-289.

22) 자유신문, 1945년 11월 23일자, 「임시정부특과사무국 이전」.

23) 자유신문, 1945년 11월 30일자, 「특과사무국 해산」.

24)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역사연구회, 1996:21; 한시준, 「해공 신익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41 참고할 것.

속히 전개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북 전 민족 각계각층의 역량을 통일 단결할 때만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민주 방식의 평화통일을 바랐다.²⁵⁾

이러한 의지에서 15일 만에 정치공작대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이른 시일 안에 정치공작대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특파사무국 인사들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정치공작대는 중앙본부 설립과 함께 지방조직도 갖추어 나갔다. 지방조직은 ‘애국심이 투철한’ 지역 인사들을 조직원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들은 지방 거점을 확보하고 기본 조

직을 끝냈는데, 말단 점조직은 각 지방책에게 일임하기도 하였다. 이에 각 시군 단위의 우익진영 애국단체 대표와 주요 간부를 포섭하였다.

이후 1945년 12월 28일 총무로 2가 소재 한미호텔에서 전국대표자 대회 개최하고 전국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하였고 이북 5도에도 조직 요원을 침투시키기로 하였다. 정치공작대의 본부는 신익희가 머물고 있던 낙산장에 두었다.²⁶⁾ 이때 신광렬로 정치공작대에 가입하였고 낙산장에서 거처하게 되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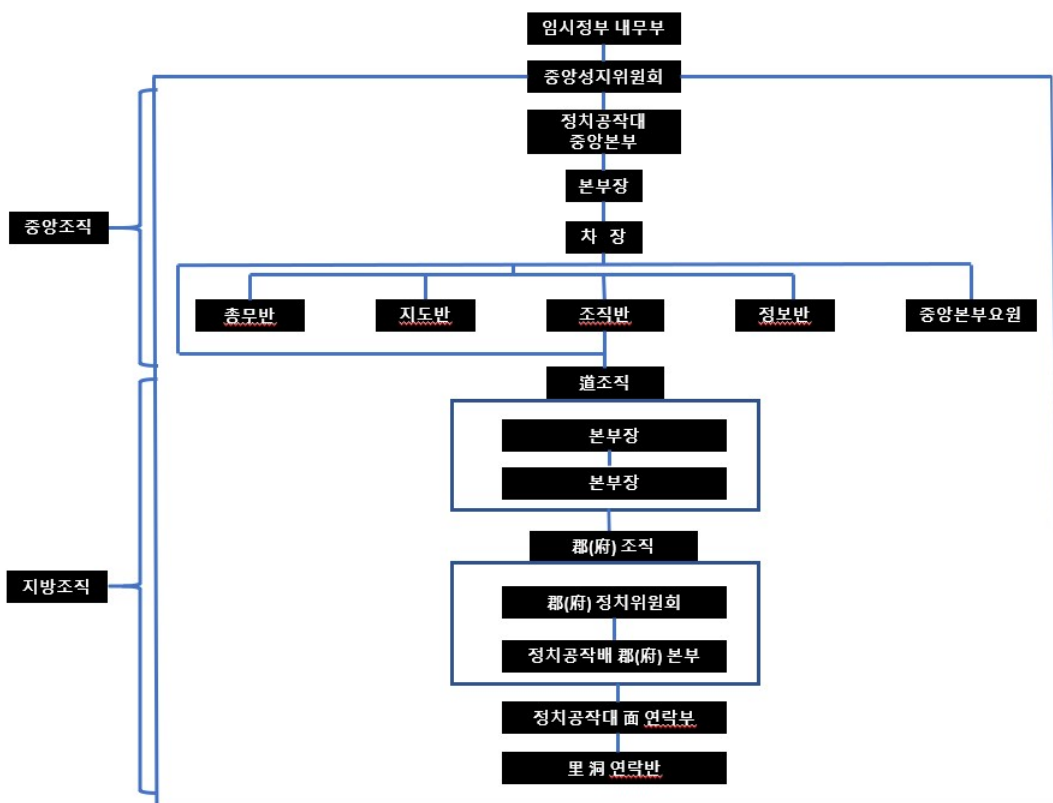


그림 1. 정치공작대 조직체계
 ※ 박진희. 위의 논문. p. 178 참고

중앙본부 부장 : 신익희
 중앙본부 차장 : 강태동, 총무 김정실, 재정 임병기, 조직 조중서, 정보 박문
 중앙요원 : 진헌식, 백시영, 백창섭, 남상학, 김제선, 이만영, 이을식, 이종근, 유익배, 정희섭,

안병성, 신관섭, 강응룡, 안준희, 서상호, 최기성, 이희두, 김형집, 조성식, 심창섭, 성낙준, 김제철, 강현원, 이인남, 조완식, 정낙진, 조영진²⁸⁾(밑줄은 북한에 파견된 요원, 굵은 글씨는 신광렬 친구 아들)

25) 신조선보. 1945년 12월 11일자. 「獨立達成의 基本은 全民族的 統一에 있다.」; 민중일보. 1945년 12월 11일자. 「國務會 討論 中心은 民族統一이 오직 平和로.」.

26) 김제선. 『大韓民國 建國을 爲한 政治工作隊의 活動主史』. 서울:낙산동지회. 1994:73.

27) 신광렬. 『월남유서』 참고. 이에는 “만북 월남하여 경성부 종로 5가 낙산장에 去하여 나의 친구 장남 안준희 군을 상봉하여 신익희 씨의 정치공작대에 가입하여 함남북도 책임위원으로...”이라 기술되어 있다.

정치공작대 본부, 실무 집행 부서인 각 반에는 반장과 반원들이 있었고, 각 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앙본부 요원으로 조직하였다. 총무반은 정치공작대의 내부 사업, 지도반은 간부 선발, 조직반은 정치공작대원들을 남북 전역에 파견하여 임정 지지자들과의 연대 모색과 대원들의 검열 사업을 담당하였다. 조직반은 핵심부서였고, 정보반은 남북한 각 정당의 활동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다수가 북한 출신으로 일부는 우익 청년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연고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조직공작과 활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한편, 1945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소련이 5년간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 정치는 크게 요동쳤다. 임시정부는 이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모두 경교장에 모여 신탁통치에 관한 임시정부의 태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²⁹⁾ 그 결과 임시정부는 전 국민과 함께 신탁통치를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³⁰⁾ 이에 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가 설치되었고 ‘강력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임시정부 내무부 산하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가 주도하여 미군정부로부터 ‘정권 접수’를 시도했다.

정치공작대의 총책임자 신익희는 1945년 12월 29일 서울 시내 9개 경찰서 서장을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인 駱山莊으로 불러서는 임시정부 지시에 따라 반탁운동에 호응할 것을 명령하였다.³¹⁾ 또한 신익희는 정치공작대에 반탁 시위 준비를 지시하는가 하면,³²⁾ 그가 별도로 조직한 행정연구위원회에 임시정부가 미군정부로부터 정권을 ‘접수’한다는 「布告文」을 작성토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로 마련된 ‘국자 1·2호’ 포고문은 1945년 12월 31일 내무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발표되었고, 정치공작대원들은 이를 서울 시내에 부착하고 지방에도 전달하였다. 이는 미군정의 지휘를 받고

있던 “한인 직원 및 경찰기관을 임시정부로 예속시킨다”라는 선언이었다. 국민에게는 임시정부의 ‘지령’에 ‘복종’하라고 공표하였다.

‘국자 포고 사건’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국자 포고’ 발표와 ‘총파업’ 지시를 자신들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쿠데타’로 받아들였다.³³⁾ 이로써 임시정부와 미군정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갈등은 1946년 1월 1일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과 김구와의 면담을 통해 봉합되었다.³⁴⁾ 엄항섭은 이를 수습하고자 중앙방송을 통해 파업 중지와 復業을 지시하고 반탁운동이 미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갈등을 수습하고자 하였다.³⁵⁾ 하지만, 이날 하지는 CIC에 신익희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요원들이 정치공작대 중앙본부인 낙산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신익희는 피신한 상황이었다. 결국 신익희는 1월 3일 연행되었고, 다음날 무죄 방면되었다.³⁶⁾ 이후 미군정은 그동안 임시정부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던 방침을 바꿔 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선회하였다.³⁷⁾ 1946년 8월 29일 국지일을 앞두고 신익희의 쿠데타 계획을 입수한 CIC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이때 정치공작대 등 모든 서류가 압수되었다. 이는 ‘신익희 파일’로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가 1995년에 펴낸 『미군 CIC 정보보고서』 1권에 묶여 있다.

한편, 신익희는 북한지역에도 정치공작대를 결성하고자, 1945년 12월 광복군 출신의 柳益培(황해도 안악)·鄭熙燮(평양 출신)·安秉星 등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 각 지역에 정치공작대를 설치하는 것과 북한에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평양에 잠입해 조만식을 만났고, 그에게 월남을 설득했으나 그가 북한 인민들을 위해 북한에 남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신익희는 CIC에서 풀려난 뒤, 1946년 1월 7일 白時英(신의주 출신)·姜應龍에게 ‘반탁 포고문’과 ‘국자 1, 2

28) 박진희. 앞의 논문. p. 180.

29) 동아일보. 1945년 12월 29일자. 「國務委員會 緊急開催」.

30) 중앙신문. 1945년 12월 29일자. 「決議四案件內容」, 「四國元首에게 보내는 全文內容」.

31) 유치송. 『해공 신익희 일대기』. 서울:海公申翼熙先生紀念會. 1984:453.

32)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신익희』. 서울:태양출판사. 1972:243-244.

33) USAFIK. 「G-2 Weekly Summary(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no.17(1946.1.8.);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HUSAFIK)』. 2. 서울:돌베개. 1988:145, 151-152.

34) 하지는 김구를 만난 자리에서 임시정부의 ‘정권 이양’ 행위를 중지하라고 설득했다. 또한 1946년 1월 3일 정치공작대의 수장 내무부장 신익희를 CIC 본부로 연행하고 정치공작대 서류 일체를 압수하였다(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HUSAFIK)』. 2. 서울:돌베개. 1988:152;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역사비평사. 2005:511;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191).

35) 정용욱. 위의 책. p. 191.

36) 조동걸. 『해공 신익희의 임시정부 활동』. 한국학논총. 1995:18:118.

37) 정용욱. 「미군정의 임정관계 보고서」. 역사비평. 1993:24:364, 375.

호'를 가지고 월북토록 하였다. 이들은 평안도의 기독교계 인사 포섭, 반탁운동 전개 등의 임무를 띠고, 1월 8일 평양에 도착하여 활동하였다.³⁸⁾

2. 신광렬의 정치공작대 활동³⁹⁾

신광렬은 정치공작대 본부로부터 월북하여 공작하라는 명령을 받고, 1946년 1월 22일 서울에서 출발하여서 한 달여 만인 1월 29일에 고향인 신북청에 돌아갔다. 그가 어떤 경로를 이용하여 월북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⁴⁰⁾ 그런데 1월 30일 오전 9시경 그가 집에 돌아왔는지 어찌 알았는지 무장한 신북청 보안대원 3명이 찾아와서는 가택 수사 후 그를 강제로 연행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는 옷 속에 서류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발각 시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때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의약품을 만지작거리며 주사용 광고지를 비밀문서처럼 감추는 시늉을 하며 시선을 끌었다. 그러자 보안대원 3명은 일시에 달려들어 의약품 속에서 비밀문서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껌싸게 집을 도망쳐 나왔다.

그런데 降雪이 시작하였기에 보안대 3명은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는 북쪽을 향해 5리쯤 도망쳐 산으로 들어가 피신하였다. 밤새도록 눈이 내려 약 5척 이상 쌓였다. 이에 기차나 자동차의 통행이 끊기었고 마을 주민들도 왕래하기 힘들었다. 그에겐 주민들에게 발각될 염려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남산에 살고 있는 5촌 당숙의 집으로 찾아가 한복 夏衣 상하와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부싯돌 한 개, 가위, 兔毛 등을 옛날 보따리에 챙겨 넣은 뒤 노인 행차처럼 하고서는 반쯤 언 남대천을 건넜다. 그는 밤을 이용하여 걸어서 先塋이 있는 鍾山을 거쳐 3일 만에 홍원역에 도착하였다. 이후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함흥 內湖⁴¹⁾까지 와서 피난민 속에 들어가 행적을 감췄다.

그는 5일 동안 걸어서 마침내 강원도 고산군 양사리 광산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간에는 해변과 시장에서 지내고 야간에는 오후 11시 이후에는 刑事隊가 검문을 마

친 후 들어가 잠을 청했다. 매일 식사는 시장에서 사 먹고 지내면서 월남할 선박을 수소문하여 어렵게 배를 구해 남하하던 중 3일째 되는 날에 발동선이 고장 나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강원도 주문진에 도착하였다.

그가 서울을 떠난 지 13일 만인 2월 3일 남한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몸골은 거지 중의 상거지였기에 어느 여관에서든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이에 그는 먼저 이발소를 찾아가 이발한 후 초면 부지임에도 무작정 주문진 의원에 들어가 1,500원을 얻어서는 옷을 사 입고 강릉까지 내려와서 김 장로라는 사람에게 500원을 얻어 겨우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길로 정치공작대 본부가 있는 낙산장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보고하였다. 그 뒤 1946년 3월 3일 한미호텔 지하실에서 열린 정치공작대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북한의 실정을 보고하였다. 이때 그는 활동 자금으로 3천 원 을 받았다.

한편, 1946년 2월 김일성 암살 목적으로 중앙 본부요원 김정의·김형집·최기성 등이 북한에 파견되어,⁴²⁾ 3·1절 기념식장에 포탄을 던졌으나 김일성 암살에 실패하였다.⁴³⁾ 이후에도 이들은 3월 12일까지 최용건·김책·강양욱 등의 자택을 습격하였는데, 이에 가담하였던 김정의·김형집·이희주 등이 체포되었고 최기성은 사망했다.⁴⁴⁾ 이후 북한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기관지 正路에 김정의 일행이 이승만·김구의 위임을 받은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의 위임을 소지하고 파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들이 보안국에 체포되었는데 북한의 철도공장에 방화하고 기타 생산기관인 공장과 직장에도 방화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더불어 여기에는 신익희가 최기성에게 교부한 1946년 2월 15일자 위임장 사진도 함께 실렸다.⁴⁵⁾

이후 북한에서 정치공작대의 활동에 협력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다. 그런 가운데 신광렬의 공작 내용 일부가 알려졌고 그의 부인이 유치장에 끌려간 뒤 고문에 사망하였다.⁴⁶⁾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신광렬은 이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결심하고 1959년 『월남유서』를 남겼다.

38)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신익희』, 서울:태양출판사, 1972:251;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편』, 서울:北韓研究所, 1990:288.

39) 신광렬이 작성한 『월남유서』 중에 그가 정치공작대원으로 활약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40) 그런데 박진희의 앞의 논문에 실린 <표 3> 정치공작대 지방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에는 함경도 지방위원으로 康基德·李弘俊·董重善·李國善 등의 명단만 기재되어 있다(p. 187). 이후 연구에서는 신광렬이 추가되어야 한다.

41) 내호는 홍남 비료공장 옆에 있는 곳이다.

42)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편』, 서울:北韓研究所, 1990:289.

43) 한국통일촉진회 편, 『북한반공투쟁사』, 서울:韓國統一促進會, 1970:168.

44) 정병준, 『현준혁 암살과 김일성 암살시도-평남 건준의 좌절된 '해방황금시대'와 백의사』, 역사비평, 2021:136:369-371.

45) 正路, 1946년 3월 22일자, 『金九·李承晚 徒黨의 殺人·放火의 罪惡行爲!』.

그런데 정치공작대는 반탁운동을 계기로 미군정의 해체 압력을 받게 되고, 이를 주도한 신익희가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약화되어 갔다. 1946년 2월 8일 이승만의 독립촉성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결성되었는데,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김구가 그해 4월 28~29일에 임시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때 거국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정치공작대와 정치위원회는 독촉국민회에 합류하도록 하였다. 이 단체들이 실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합류한 것은 그해 6월에 개최된 총회의 이후였다.⁴⁷⁾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공작대가 해체된 것은 4월 임시대표회의 결정에서였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신광렬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낙산장에서 지내다가 정치공작대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합작되어 운현궁에 본회를 두고 위원장 신익희 씨, 부위원장 오하영 씨가 되어⁴⁹⁾ 약 1년간 지속하다가 양자 간의 알력이 생하여 회 내 분규가 심한 중 이승만 박사가 민족통일본부를 이왕궁 아악부에 설치하고 신익희·오하영 양인의 권고사직과 동시에 이시영 씨를 국민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독촉국민회에서는 또 다시 양씨의 부하들 간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도 남한 정객들의 운동 정신이란 모두 自家의 권익 쟁투전과 또는 정치적 모리배는 어느 정계이고 속출하였기에 군정 당시 중류 이하의 정객들은 민간으로부터 불신임 상태에 ○入하여 1일 1식도 極難 중이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1946년 4월 정치공작대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합류하기로 하였지만, 신익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신익희는 한국민주당과의 거리를 두었지만, 이승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꾀하였다. 이를 위해 신익희는 자신의 세력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정치공작대를 십분 이용하였다. 이에 신익희는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고자 1946년 6월 10일 개최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제2차 전국대표자대회에 정치공작대를 합류시키면서 오

하영과 함께 부의장에 선출되면서 우익진영 내의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이로써 정치공작대 대원들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⁵⁰⁾

그렇다고 정치공작대의 모든 요원이 정치적인 실권을 쥔 것은 아니었다. 신광렬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류 이하의 정객들은 민간으로부터 불신임 상태에 ○入하여 1일 1식도 極難 중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 아마 신광렬도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고 정치 혐오감에 정계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IV. 한의사 활동과 家傳秘方 ‘靑坡驗方要訣’ 저술

신광렬은 1946년 6월경 정치계를 떠났다. 신광렬은 신익희가 “各人是 眞작을 찾아서 지내라”라는 지시에 따라 정치를 단념하고 본업인 의업으로 돌아왔다. 그런 그가 취직한 곳은 서울에서 만난 지인들의 소개로 남대문구 신설동에 있던 洋藥房이었다. 약방은 약국과 달리 의약품 판매권을 허가받아 장사하는 곳이었다.⁵¹⁾

해방 직후 약국과 약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제사 혹은 약종상 면허증이 있어야 했다. 당시는 해방되었지만, <약사법>이 1953년 11월 제정되기 전이었기에 일제강점기에 제정, 공포된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1912.3.28. 제정)에 따랐다. 이에 따르면 약제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합하는 자를, 약종상은 약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약자는 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를, 매약업자는 매약을 조제·이입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 구분하였다. 약제사는 조선총독으로부터 약제사면허증 또는 내무대신으로부터 약제사면장을 받도록 하였고, 약종상·제약자·매약자가 되려는 자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었다.⁵²⁾ 약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했는데, 學說시험 및 實地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학설시험은 물리학, 화학, 약용식

46) 현대사연구소 편. 「조직공작상황에 관한 사항」. 『미군 CIC정보보고서』 1권. 서울: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47) Philip Rowe가 작성한 미군정청 공보부 보고서, “Summary Recent Info., Concerning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Rapid Realization of Korean Independence”, 25 Sept. 1946 참고.

48)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신익희』. 서울:대양출판사, 1972:245.

49) 이는 오키이다. 1946년 6월 10일 개최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제2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부위원장에 신익희와 오하영이 선출되었다.

50) 박진희. 위의 논문. p. 197-203.

51) 경향신문 1954년 4월 25일자. 「약국과 약방의 차이」.

52) 「관보」. 1912년 3월 28일자. 법률 <藥品 및 藥品營業 取締令>.

물학, 생리화학, 위생화학, 약국방 등을 합격하면 분석학(定性·定量), 약품감정, 제약화학, 조제학 등의 실지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다.⁵³⁾

그는 신설동 약방에서 6, 7개월간 근무한 뒤 1947년 1월경 성동역 근처에서 약방을 차렸다. 이때 그가 약제사 면허증을 취득했거나 약종상 판매권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가 1932년 7월 서간도 臨江縣의 현립의사강습소에서 6개월간 공부한 후 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廣生醫院을 열어 8년 동안 운영한 바도 있고,⁵⁴⁾ 해방 후 신북청역 인민종합병원 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미군정 시기에 의사면허 시험을 치렀는데 불합격하여 약방을 차린 것이 아닌가 한다.

해방 직후 1946년 1월 미군정 하에서 의사 면허시험을 치렀는데, 중화민국·만주국 시기에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내과학·외과학·産科學을 조선에서 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3과목 외에 藥物學·병리학·세포학 등을 포함하여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졌다.⁵⁵⁾ 그런데 당시는 그가 정치공작대에서 활동하던 시기였기에 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 뒤 그가 정치계를 떠나 약방에서 근무하던 1946년 10월 두 번째로 만주에서 개업한 의사 혹은 만주에서 의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의사시험을 실시하였다.⁵⁶⁾ 시험과목을 전에 것과 같았다. 아마 이때 그가 의사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그 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의사 시험은 폐지되었다.⁵⁷⁾ 이후 의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보건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국내외 사립 의과대학이나 사립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수업연한 4년제 이상의 중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입학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문교부 장관이 인정한 전문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 가운데 현대 의학을 5년 이상 습득한 자만 응시가 가능했다.⁵⁸⁾

그는 약방을 운영하던 중 1950년에 재혼하였다. 그는 1951년 1·4후퇴 당시 처가 집 식구 11명을 데리고 남하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당리 점촌에서 1개월간 피난 생활을 하였다. 이 무렵 처남 2명은 향토방위대원으로 편입되어 큰 처남은 대구로, 작은 처남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얼

마 뒤 중공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가 집 식구들을 서울로 올려보냈다.

그 뒤 당진군 우강면 남원포에 사는 반신불수가 된 金壽男의 6살 된 장남 英喆을 침술과 약으로 완치케 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광생의원을 열고 만 4년간 환자를 치료하였다. 그러던 중 1955년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 이전한 뒤에 그해 3월 시행한 전국한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당시 응시생은 103명으로 10년 이상의 한의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60명만이 합격하였다.⁵⁹⁾ 한의사 시험은 1, 2부로 나뉘었는데, 1부 시험과목은 생리학·약물학(한약에 한함)·병리학·해부학·위생학, 2부 시험과목은 진단학·내과학·소아과학 등이었다.

그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뒤 1957년 8월 충남 아산군 도고면 선장역(현 도고온천역) 앞에 靑坡韓醫院을 개원하였다. ‘청파’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는 ‘북청의 고개’라는 뜻인데 이를 자신의 호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말대로 “나는 참말 일생이 불운아로서 沉常 老境의 부모님 생각과 鄉愁에 고민 중 극심 타락자가 되어 불면증이 발생하면 언제가 진정제 주사로 신경적 안위를 받든지 長時日이 경과하고 보니 습관성이 변하여 만성 중독자가 되었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는 1959년 12월에 자살할 결심을 하고 ‘越南遺書 遺書於申俊植’를 쓰기도 하였다. 계기는 북에 두고 온 처가 자신의 정치공작대 활동이 발각되어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아 죽었고 또한 신북청역에서 역부로 일하던 장남까지도 비명횡사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더욱이 1946년 가을 북한에 있던 장남이 그를 찾아서 서울 돈암동까지 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원한이 컸다.

하지만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그러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중독증을 완치하였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는 양친 부모님의 봉양도 못하고 북청에 있는 가족의 안부도 몰라서 곡수에 맺힌 원한과 불운아의 여성

53) 매일신보. 1916년 4월 29일자. 「藥劑師시험규칙」.

54)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위의 논문. p. 475.

55) 공업신문. 1945년 12월 22일자. 「醫師試驗施行」.

56) 대동신문. 1946년 8월 28일자. 「滿洲出身 醫師試驗」.

57) 자유신문. 1946년 12월 16일자. 「의사시험 합격자」.

58) 홍창희. 「한국 의사 검정시험의 실태: 1914-1963년」. 연세의사학. 2021;24(2):130.

59) 조선일보. 1955년 4월 8일자. 「한의와 치과의」.

을 중단하려고 최후의 결심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애
준식아, 민식아! 너희들이 장성하여서 나의 이 유서를
보고 나 죽은 다음 38선이 열려서 남북 교통이 되거
든 너의 형제는 나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너의 형 관식
이를 만나보고 또 친척도 찾아가서 나의 천추여한의
일을 말하면서 너의 형제 간의 의리도 결속하여라. 북
한 나의 고향, 나의 소유물과 토지 서류까지 내가 월
남 후에 몰수를 당하고 그동안 부모와 및 가족들의 고
통과 비통은 불가형언이란 것을 나는 ??하였다. 때로
는 自歎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나의 가치로 비운
속에서 일생을 종결할 사람도 있을까 하고 애탄한 적
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구한말路에 군국이라
38선이 생기기도 남북이 갈라지자 동족상잔이 생기면서
나와 같은 처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 수십만 명인
것을 나는 각오하면서 민족의 비운과 향수의 백광환을
가슴 속 깊이 쌓이고 이 유서를 쓴다.

한때 평택으로 잠시 옮겨갔다가 서울로 올라와 먼저 마
포 도화동에서 3년을 머물다가 1972년경 녹번동 고갯길 대
로변의 흥은동에 함남한의원을 개원하였다. 그는 자신이 그
동안 쌓았던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험을 살려 경험방의 하
나인 家傳秘方⁶⁰⁾인 ‘靑坡驗方要訣’을 남겼다. 본인이 한의
업을 6대째 이어오고 있던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⁶¹⁾ ‘청
과험방요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충분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신민식이 그 책에 실려있는 허리병
치료약 ‘청과전’이라는 한약에 처방을 가감하여 척추디스크
치료 한약을 만들었고, 비수술 척추 치료법인 추나요법을
발전시켰다.

신광렬은 1973년 의림사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에 있어
어떤 병에 장기인가?’라는 질문에 신경질환으로 중풍, 소아
마비를 꼽았다. 이는 치료하는 데 있어 효율이 높아 기뻐던
일을 세 가지를 꼽은 것도 그와 관련한 것이다. 첫째는 반
신불수가 된 어린 김영철을 한방과 양방으로 치료하여 3개
월 만에 완치시킨 것, 둘째는 아산군 선장면에 있을 때 박
종옥의 모친(58세)의 중풍을 완치시킨 것, 셋째, 연세대 학
생 김동호의 모친이 반신불수였는데 1개월 8일 만에 완치

시킨 것이라 했다.⁶²⁾ 반대로 치료 중에 낭패를 본 일에 대
해서도 언급했다. 그가 당진에 있을 때 腹部肝臟癌을 혹으
로 오인하여 양방으로 수술하였으나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하여 무료 봉사하고자
애썼다. 한의업에 충실히, 올바르게 사는 것이 본분이라 여
겼고, 모자란 사람으로서 여생을 바른 일 하면서 살고자 하
였기 때문이다.⁶³⁾ 1974년 계단에서 굴러 척추를 다쳐 6년
여 동안 자리에 누워 생활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도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1980년 ‘矜恤
之心’의 유지를 남기고 작고하였다.⁶⁴⁾

V. 맺음말

신광렬은 고향인 신북청에서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
였고, 신북청인민종합병원 원장으로 잠시 근무하였지만, 그
해 12월 반인륜적이고 폭압적인 소련군정 통치에 반감이
생겨 홀로 월남하였다. 그는 77년을 살고 30여 년을 남한
에서 지냈는데, 본 논문은 해방 이후 신광렬의 활동을 중심
으로 생애를 살펴봤다.

그가 생애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북한에 남겨
놓고 온 가족이었다. 해방 직후 그는 ‘해방군’으로 인식된
소련군이 북한의 중요한 공업지대의 기계를 마구 빼가거나
부녀자들을 성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
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숨죽이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한 뒤
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치안이나 행정권을 이양받아 막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갔
다. 특히 인민들에 무상 치료를 실현한다고 하여 그가 운영
하던 병원을 인민병원으로 바꾸었고, 만주에서 병원을 운영
하여 번 돈으로 고향 땅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마저도 무
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월남이었다.

이때 그는 38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60) 경험방은 집안에서 내려온 家傳秘方에서부터 평생 활용하여 효험이 있었던 개인적 경험방, 다른 醫家들에게 전해 들어 활용한 경험방이 있었던
효험방, 의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名方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김남일,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11. 한의신문 2019년 10월 2일자).

61) 1대 申命煥, 2대 申尙範, 3대 申錫賢, 4대 申泰儉, 5대 申永均, 6대 신광렬(https://museum.jaseng.co.kr/)

62) S기자. 「저명한 한의원을 찾아서」. 醫林 102. p. 44-45.

63) S기자. 「저명한 한의원을 찾아서」. 醫林 102. p. 45.

64) 아시아경제. 2023년 6월 7일자. 「『공홀지심』 철학으로」.

못했을 것이다. 이에 잠시 그들의 탄압을 피하고자 하였지만, 점차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로 굳어갔다. 이때 그가 선택한 것은 신익희가 조직한 정치공작대였다. 초창기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익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여 북한에 요원들을 파견하여 조직을 확장하고 신탁통치 반탁운동을 확산하며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목적도 있었다. 신광렬은 정치공작대 합경남북도 책임위원으로 신북청에 파견되었다. 이때 고향을 떠난 지 1달여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들이닥친 보안대원들이 가택 수색하여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급히 몸만 빠져나왔다. 그 길로 다시금 남하하였고 이후로 북에 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더욱이 정치공작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의 부인이 보안대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받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신광렬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월남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이후 1946년 4월 정치공작대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합류하기로 하고 그해 6월 실행되면서 중앙요원들은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지만, 그를 포함한 대다수의 요원은 호구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다. 이때 신광렬은 정치에 혐오감을 갖게 되면서 정계를 떠났다.

신광렬은 약방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갔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충남 당진에 피신하였고, 그곳에서 한의원을 열었다. 1955년에는 전국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충남 아산에 정식으로 靑坡韓醫院을 개원하였다. 1969년경에 서울로 올라와 마포 도화동에 한의원 열어 3년 동안 운영하다가, 1972년경 녹번동 고갯길 대로변의 홍은동에 함남한의원을 개원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험을 살리고 7대째 내려오는 치료법을 ‘靑坡驗方要訣’로 정리하였다.

그는 말년에 가난한 환자들을 위하여 무료 봉사하고자 애썼다. 1974년 계단에서 굴러 척추를 다쳐 6년여 동안 자리에 누워 생활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도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1980년 ‘矜恤之心’의 유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자유신문. 중앙신문. 신조선보. 아시아경제

2. USAFIK. 「G-2 Weekly Summary(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3.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HUSAFIK)』. 서울:돌베개. 1988.
4. 현대사연구소 편. 『미군 CIC정보보고서』 1권. 서울: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1996.
5. 신광렬. 『월남유서』. 친필본. 1959.
6. 김제선. 『大韓民國 建國을 爲한 政治工作隊의 活動主史』, 낙산동지회. 서울:낙산동지회. 1994.
7.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평안남도편』. 서울:北韓研究所. 1990.
8. 신창현. 『해공 신익희』. 서울:太極出版社. 1976.
9.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신익희』. 서울:태양출판사. 1972.
10. 유지승. 『해공 신익희 일대기』. 서울:海公申翼熙先生紀念會. 1984.
11.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역사비평사. 2005.
12.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13. S기자. 「저명한 한의원을 찾아서」. 醫林 102. 의림사. 1973:102.
14. 김진혁. 「해방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월남의사의 정착」. 역사와 현실. 2022;126:37-50.
15. 김진혁, 문미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 의료지원과 교류(1945-1958): ‘소련배우기’와 ‘주체적’ 발전의 틈새에서」. 의사학. 2019;28(1):139-190.
16. 박진희. 「해방 직후 정치공작대의 조직과 활동」. 한국역사연구회. 1996;21:168-204.
17. 유길재.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91:41-92.
18. 이계형, 신민식, 정상규. 『越南遺書』를 통해 본 申光烈의 생애와 독립운동. 민족문화논총. 2022;82(82):451-486.
19.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5;9:348-349.
20. 정병준. 「현준혁 암살과 김일성 암살시도-평남 건준의 좌절된 ‘해방황금시대’와 백의사」. 역사비평. 2021;136:342-388.
21. 조동걸. 「해공 신익희의 임시정부 활동」. 한국학논총. 1995;18:118.
22. 한시준. 「해공 신익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41:95-124.
23. 홍창희. 「한국 의사 검정시험의 실태: 1914-1963년」. 연세의사학. 2021;24(2):111-145.